

제 285호 · 2014년 12월 3일

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

총괄 이성우 실장, 감수 길광수 감리위원

KMI

국제물류위클리

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

| CONTENTS |

물류 정책·사업동향

1. 독일 브레머하펜, 완성차 처리능력 확장에 박차
2. DHL Supply Chain, 중국 물류인프라에 추가 투자
3. 케냐 몸바사 컨테이너 터미널, 상반기 물동량 13% 증가
4. CMA CGM, 아시아~동아프리카 서비스 신설

물류시장동향

1. Fraport AG, 그리스 공항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
2. IMO, 새로운 Polar Code 승인 및 SOLAS 개정 예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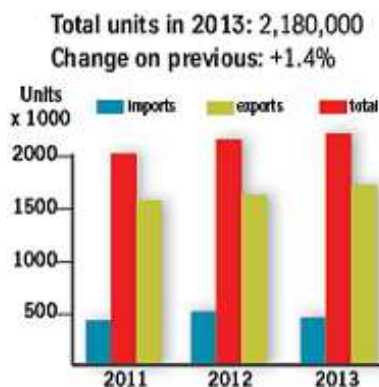
한국해양수산개발원
KOREA MARITIME INSTITUTE

물류정책 · 사업동향

□ 독일 브레머하펜, 완성차 처리능력 확장에 박차

- 독일의 완성차 수출 증가 및 유럽 자동차 생산의 공급사슬 변화에 대비, 독일은 물론 유럽 최대의 완성차 수출항인 독일 브레머하펜(Bremehaven)이 시설 확장 등 자동차 수출입 처리능력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
- 브레머하펜¹⁾의 완성차 처리물량은 2013년 2백10만 대 수준에서 2014년 11월 말 현재 2백30만대 수준으로 증가했음
 - * 독일은 브레머하펜을 통해 BMW, 메르세데스-벤츠, 폭스바겐 완성차를 수출하고 있음
 - * 브레머하펜은 2013년 완성차 2백18만대를 수출하여, 벨기에의 지브뤼게항(동기간 약 2백만 대 수출), 독일의 엠덴(Emden, 동기간 약 1백20만 대 수출), 영국의 그림즈비(Grimsby, 동기간 95만대 수출) 등을 제치고 부동의 유럽 최대 자동차 처리항으로서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음
- 브레머하펜 완성차 수출 증가는 중국 및 북미 지역의 수요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됨

<독일 브레머하펜의 완성차 수출입 실적(2013년) >



- 주요 업체: BMW, 메르세데스-벤츠, 폭스바겐 그룹
- 터미널 운영사: BGL 자동차 로지스틱스

자료: www.automotivelogisticsmagazine.com

- 2012년 이전까지의 약 5년간 독일 주요 자동차 수출입 항만의 실적은 다른 유럽 국가들의 주요 항만에 비해 침체를 겪은 바 있음
- 2014년 3월 자동차 물류 전문지 Automotive Logistics가 유럽 40개 항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, 완성차 교역 면에서 지난 5년간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인 항만들은 그림즈비 등 영국 항만

1) 2013년 브레머하펜 항만연감에 따르면, 브레머하펜의 총 화물처리량은 7천8백73만톤으로 이중 일반화물이 7천만톤에 육박하고 있음.

- (유럽 전체 자동차 교역 시장의 8% 점유)과 수출 실적이 두드러진 스페인 항만(비고, 바르셀로나 등)이 꼽히고 있음
- 반면 독일의 항만들은 프랑스, 이탈리아, 동유럽의 항만들과 함께 상대적으로 침체기를 겪었던 것으로 분석됨
 - 유럽의 자동차 교역 전체로 보면, 유럽 항만들은 수출이 강하고 수입이 약해 수출입간 불균형이 크다는 점이 공통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
 - * 브레머하펜의 경우, 연간 수입 완성차 처리 물량은 50만대 수준
- 이와 같은 상황에서 브레머하펜의 자동차 교역 전용 터미널 운영사인 BLG는 2014년 11월 말 브레머하펜의 카이제르하펜(Kaiserhaven) 구역의 자동차 처리 능력을 개선하는 데 2천만 유로(미화 2천 5백만 달러, 한화 2백50억 원)를 투입한다고 발표했음
- 시설 투자의 핵심은 자동차 전용 운반선의 일종인 PCTC(pure car and truck carrier)의 접안이 집중되는 카이제르하펜 부두의 창고시설 확장임
 - * 접안 부두에 인접해 보관 능력 6천 대 규모의 다층식 car park 건설, 현재의 보관 능력(5만 대)을 강화
 - * 터미널 운영사는 이와 같은 시설확장 공사를 2015년 3/4 분기 중 완료할 계획임
 - 이와 더불어 항만 관리사인 브레멘항은 브레머하펜의 연결성 및 해륙 복합운송 능력 향상을 위해 2015년 3월까지 브레머하펜 자동차 구역까지의 철도 인입선을 개보수할 계획임
 - * 이 철도는 브레멘하펜으로부터 약 1,400 km 떨어진 메르세데스-벤츠 입주 및 헝가리 최대의 자동차 생산 단지인 케츠케메트(Kecskemet)와 연결되어 있음
- 독일 브레머하펜의 이와 같은 항만 시설 확장 노력은 독일의 자동차 수출 물량 확대는 물론, 자동차 생산과 관련 유럽 역내는 물론 글로벌 공급사슬(supply chain)이 변화하는 데 대한 대응의 성격도 아울러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
- 2013년 말, 포드자동차는 벨기에 쟁크의 자사 생산라인(Ford Genk)을 스페인으로 이전하기로 결정
 - * 포드 쟁크는 약 1만 명의 고용을 창출했고, 벨기에 전체 자동차 생산의 60%를 차지
 - 제너럴 모터스 또한 한국 공장 내 생산라인의 일부를 스페인으로 이전할 계획임
 - 따라서 브레머하펜은 향후 완성차 수입물량의 확대에도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

자료 : www.ihsmaritime360.com, 2014.11.28.

박성준 전문연구원 (☎ 02-2105-2973, sjpark@kmi.re.kr)

□ DHL Supply Chain, 중국 물류인프라에 추가 투자

- 지난 11월 20일 DHL Supply Chain은 중국에 1억 1,300만 유로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
 - 2013년 중국에 투자할 것으로 발표되었던 1억 500만 유로와 합하면 총 2억 1,800만 유로 규모의 투자가 진행될 예정임
 - 이번 신규 투자는 중국 전역의 물류네트워크를 확장하는데 집행될 예정이며, 특히 2020년 완공 예정인 6곳의 첨단 물류시설에 집중 투자될 예정임
 - 향후 개발될 6곳의 물류시설은 광저우, 항저우, 우한, 선양, 선전, 그리고 상하이 와이카오차오 자유무역구에 위치할 계획임
- DHL Supply Chain은 아태지역에서 급성장 하고 있으며 중국은 성장의 핵심 동인이 되는 지역임
 - DHL Supply Chain의 아태지역 최고경영자인 Oscar de Bok씨는 고객들은 지역에 상관없는 동일한 운송 서비스와 사업 운영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
 - 또한 DHL Supply Chain은 고객사가 제공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, 향후 진출 예정 지역에 대한 로드맵 수립과 더불어 미래에 필요한 서비스의 수준을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했음
 - DHL Supply Chain은 향후 3년 동안 중국의 창고 시설 및 운송 능력을 50%까지 확장시킬 계획이며, 최근 중국 쓰촨성 신두(Xindu)에 신규 물류센터를 개장함으로써 서부지역의 진출을 가속화했음
 - 신규 물류센터는 54,000m²의 규모에 하이테크, 소비재 및 헬스케어에 비롯한 다방면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확장 가능하고 지속적인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품질과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
- DHL Supply Chain은 글로벌 수준의 고객들을 위한 공급망 개선을 위해 아태지역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할 계획임
 - DHL Supply Chain은 아태지역에서 재고보유를 최소화 하는 린(Lean)방식의 글로벌 공급망 지원을 위해 지난 2년 동안 5억 유로를 투자했음
 - 아태지역에서 올해에만 436,000m²에 달하는 12곳의 시설들이 추가되었으며 앞으로 110,000m² 규모의 추가시설 5곳이 2015년에 개장할 예정임
 - Oscar de Bok씨는 아태지역, 인도, 인도네시아, 태국 등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호주와 일본 시장에서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
 - DHL Supply Chain은 지속적인 경쟁우위 확보를 통해 중국 고객사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아태지역 내 영향력을 확대할 계획임

자료 : www.dhl.com, 2014.11.20.

이홍원 연구원 (☎ 02-2105-2897, hongwon@kmi.re.kr)

□ 케냐 몸바사 컨테이너 터미널, 상반기 물동량 13% 증가

- 몸바사 항만은 내륙 우간다, 르완다, 남수단, 콩고민주공화국의 물동량 처리항만으로, 올해 1월-6월 상반기 처리물동량은 11.9백만톤이며 전년 동기 대비 약 13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- 케냐국영항만공사 Gichiri Ndua 상무이사는 “항만물동량이 작년 2천2백3십만톤에서 올해 2천3백5십만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, 이는 경제적 성과 개선(an improvement of economic performance)에 따른 것”이라고 언급함
- 케냐 몸바사의 2단계 컨테이너터미널은 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항만으로, 올해 처리물동량은 계획한 물동량보다 5%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
- 몸바사항만의 1단계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은 현재 약 2/3가 완료되었으며, 2016년 중반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
 - 완공시 연간 45만TEU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게 됨
 - 또한 연간 120만TEU 이상의 물동량 처리를 목표로 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이 개발 중에 있음
 - 케냐 내부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몸바사항만은 작년 89만 4천 TEU를 처리했음
- 케냐 남부의 이웃국가인 탄자니아가 바가모요(Bagamoyo) 지역에 신규 허브 항만과 상업 시설을 구축중에 있어, 케냐 몸바사 항만은 고객 확보를 위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임

< 몸바사 항만 >



자료 : Kenya Ports Authority

자료 : www.bloomberg.com, 2014.8.22.

손보라 연구원 (☎ 02-2105-2914, bora62@kmi.re.kr)

□ CMA CGM, 아시아~동아프리카 서비스 신설

- 프랑스 선사 CMA CGM 아시아~동아프리카(Asia-East africa);ASEA 서비스 신설계획을 발표함
 - 신규항로는 ASEA 케냐와 ASEA 탄자니아 두 항로이며 이전의 단일 동아프리카 항로를 대체하게 됨
 - ASEA 케냐 항로는 케냐까지의 운송일수가 4일 줄어들게 됨
 - 기항지는 다음과 같음: 싱가포르, 탄정펠레파스(말레이시아), 클랑항(말레이시아), 콜롬보(스리랑카), 싱가포르

<ASEA 케냐 경로>



자료 : www.cma-cgm.com, 2014.12.01 검색.

- ASEA 탄자니아 항로는 탄자니아까지의 운송일수가 8일 줄어들게 됨
- 기항지는 다음과 같음: 싱가포르, 탄정펠레파스(말레이시아), 클랑항(말레이시아), 콜롬보(스리랑카), 말레(몰디브), 빅토리아항(세이셸), 다르에스살람(탄자니아), 콜롬보(스리랑카), 싱가포르

<ASEA 탄자니아 경로>



자료 : www.cma-cgm.com, 2014.12.01 검색.

- 최근 동사의 운송물량은 개발도상국의 고성장애 힘입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함
 - 2014년 3사분기 회사 보고서에 의하면 운송 물동량은 320만 TEU로 작년대비 8.3% 증가함
 - 이 기간 동안 TEU당 평균 매출액은 감소해 영업이익(EBIT) 또한 2억7100만 달러에서 2억 4800만 달러로 줄었음

- 순이익은 7000만 달러에서 2억 100만 달러로 증가한 반면 TEU당 운항비는 0.4% 감소해 지속적인 운항비 감축 정책의 효과를 봄
- 낮은 이윤으로 물량을 대량 운송하는 추세에 따라 글로벌 경쟁은 심화되고 있음
 - CMA CGM은 아시아-유럽 항로의 지속적 확장은 지양하고 아시아 역내와 오세아니아 항로를 확장하고 아프리카의 복합운송 연계성을 향상시킴
 - 리퍼 운송시장의 고성장으로 CMA CGM 또한 물동량이 증가했으며 2015년 100만 리퍼 컨테이너 운송을 목표로 최근 신규 리퍼 컨테이너 7천 개를 구매함

자료 : www.portfinanceinternational.com, 2014.11.25.

양규석 연구원 (☎ 02-2105-2928, yks8065@kmi.re.kr)

물류시장동향

□ Fraport AG, 그리스 공항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

- HRADF(Hellenic Republic Asset Development Fund)는 Fraport AG(Frankfurt Airport Services Worldwide) - Slentel Ltd를 우선협상대상 기업으로 선정함
 - 이에 따라 Fraport는 40년간 그리스 14개 공항²⁾의 운영·유지, 개발 등을 수행하게 됨
 - Fraport는 낙찰되기 위해 선금으로 1조 2,340억 유로 외에 매년 2억 2,900만 유로를 지불기로 함
 - 특히 매년 CPI에 따라 클러스터 A에 선금 6억 9백만 유로와 1,130만 유로를, 클러스터 B에 선금 6억2,500만 달러와 1,160만 달러를 지불하게 됨
 - 앞으로 4년 간 약 3억 3,000만 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됨
- HRADF 대표들은 이번 입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함
 - 국제적인 공항 건설·관리 분야의 기업이 이번 입찰에 참여했다는 것은 그리스가 국제적인 투자처인 것을 증명하며, 실질적으로 보다 향상된 운영·유지, 개발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함
 - 이번 민영화는 공항 인프라 및 서비스 등이 개선된다는 점 외에도 그리스의 관광산업이 촉진 될 것으로 전망함

자료 : infrappworld.com, 2014.11.27.

김은미 연구원 (☎ 02-2105-2835, usea1004@kmi.re.kr)

□ IMO, 새로운 Polar Code 승인 및 SOLAS 개정 예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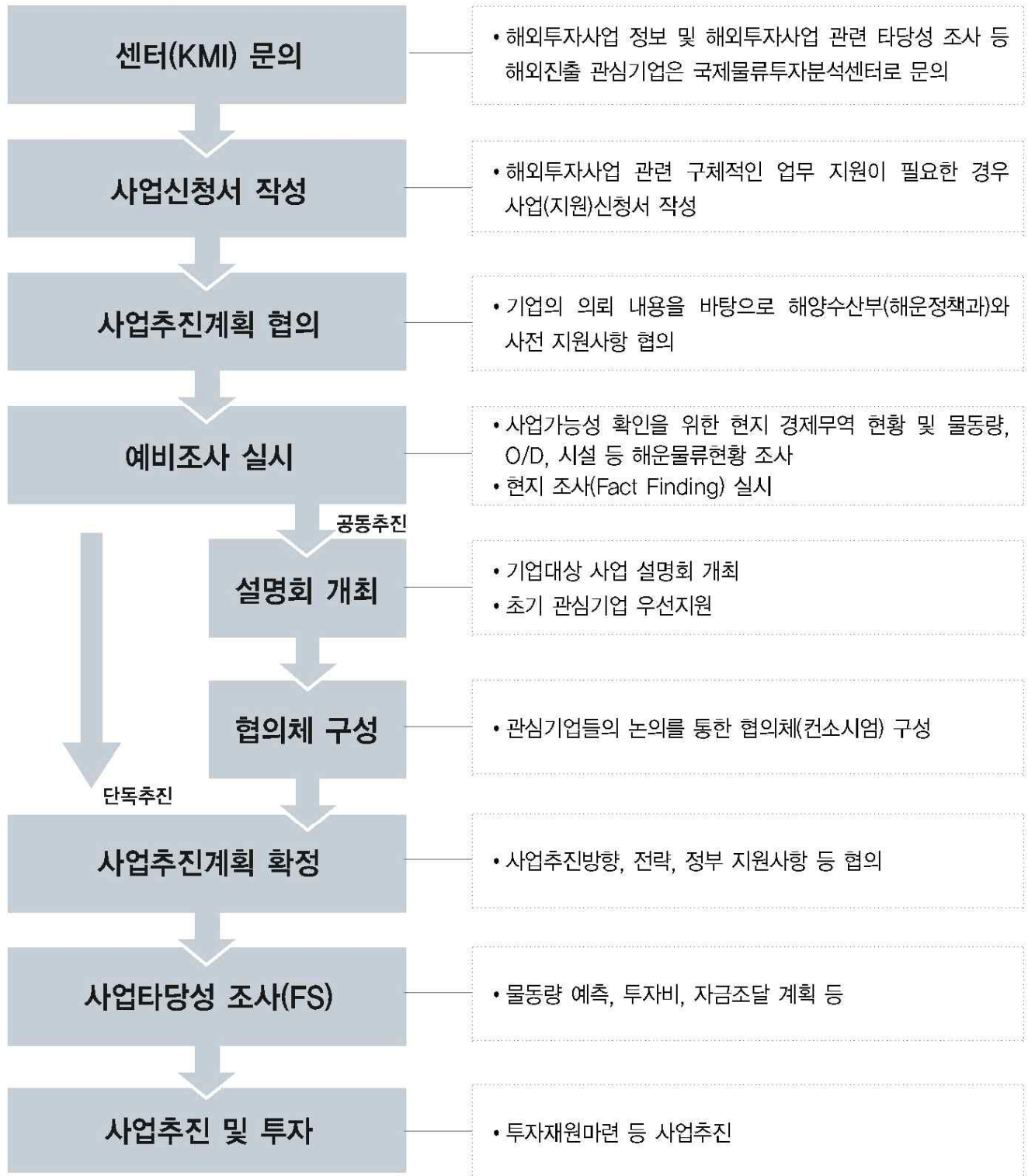
- 국제해사기구 IMO는 북극 또는 남극 해역을 통과하는 선박의 운영을 통제하는 새로운 Polar Code의 승인과 함께 2016년 7월에 SOLAS(Safety of Life at Sea)개정안을 채택할 계획을 밝힘
 - SOLAS 개정안은 컨테이너의 무게 및 화물과 유조선의 검사를 위한 새로운 규칙을 포함함
- IMO의 해사안전위원회(MSC)는 런던의 94번째 위원회 회의에서 새 Polar Code에 합의했음
 - Polar Code는 극지방 생태계의 보호를 위해 선박 설계, 건설 및 장비, 운영 및 교육문제, 수색 및 구조와 같은 사항들을 규제함

자료 : www.portfinanceinternational.com, 2014.11.27.

김주혜 연구원 (☎ 02-2105-4985, joohye915@kmi.re.kr)

2) 14개의 공항은 두 개의 클러스터로 구분되며 클러스터에 포함된 공항은 다음과 같음. 클러스터 A: Thessaloniki 공항, Corfu 공항, Chania 공항, Kefalonia 공항, Zakynthos 공항, Aktion 공항, Kavala 공항, 클러스터 B: Rhodes 공항, Kos 공항, Samos 공항, Mitilini 공항, Mykonos 공항, Santorini 공항, Skiathos공항

[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]



* 기초타당성 조사(실비 부담), 정부간 협상,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